불기 2568년 연등회

사진=윤호섭 · 이민우 기자

올해는 갑진년으로 '푸른 용의 해'라 불린다. 동아시아에서 용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여 풍운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바다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상서로운 용의 기운 때문일까. 불기 2568년 연등회가 우천 속에 봉행됐다.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연등회에는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들 만들어낸 10만 연등 물결은 하늘에서 내는 '감로수'를 따라 넘실넘실 흘렀다. 서울 종로 일원에서 펼쳐진 연등회의 모습을 화보로 꾸몄다.



5월 11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막을 올린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 연희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행복한 세상' 발원 10만 연등 물결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 흥 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